The 용문Times

용문 기자단 3월 뉴스

31 MARCH 2026

Issue No. 001

작성: 20806 김찬주 / 20815 우도윤

입학식부터 리더십캠프까지,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 3월 모의고사로 확인한 도약의 출발점

입학식(03.03)

용문고등학교 입학식

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난 3월 3일, 해촌 기념관에서 278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황진호 교장 선생님은 환영사를 통해 도전과 성취의 정신을 강조하며 신입생들의 성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진행되며 책임감과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80년 전통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월 모의고사(03.24)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체감 난이도 "매우 어려웠다"



지난 3월 24일 실시된 2026학년도 첫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학년 공통으로 높은 난이도를 기록하며 학생들에게 '매운맛' 신고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본교 OOO학생은 "타과목에 비해 영어 과목이 난이도가 특히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습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문 학사일정

미리보는 4월 학사일정



Event	Date
PAPS 측정	04.03
동아리 활동	04.08
동아리 활동	04.15
중간고사	04.27~04.30

리더십 캠프 및 학교장 간담회(03.20)



지난 3월 20일,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 1,2학년 각 학급의 정부회장들과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6 용문고등학교 임원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팀별 미션을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토론 활동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학교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십 캠프 이후에는 학교장 간담회가 진행되어 학생들과 학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 학습환경, 수학여행 등 실질적인 주제들이 논의되며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어 더 나은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용문 세계뉴스

외교 경제 교육 세계 뉴스

31 MARCH 2026

Issue No. 001

2026 글로벌 리포트: AI 경제 질주와 중동발 안보 파고, 한국의 선택은?

외교

2026년 현재 국제 사회의 가장 큰 외교적 변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제 유가와 물류비 폭등은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중이며, 각국 외교 부처는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 충돌로 촉발된 중동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낳으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유가 급등은 물론 해상 물류 마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는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여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력을 지렛대 삼아 실용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세안 및 유럽과 연대를 강화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AI 혁신과 반도체 수출, 한국 경제의 새 엔진

2026년 세계 경제는 AI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투자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주요국이 3%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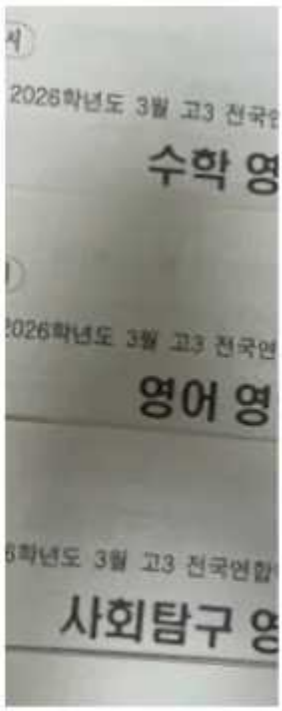
우리 경제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대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주력 기업들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조선·방산 섹터의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고질적인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는 현재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교육

2026 3모.. 체감 난이도 "매우 어려웠다"

지난 3월 24일, 2026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3모)가 실시되었습니다. 본지에서는 학년별 특징과 이번 시험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고3의 경우 국어와 영어 영역이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고2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답게, 단순 암기보다는 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대거 출제됐습니다.특히 2028학년도 대수능 예시 문항의 논리 구조가 반영되는 등 신유형에 가까운 문항들이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고1 모의고사에서는 중학교 전 범위가 출제되었으나, 고교 수준의 긴 지문과 복합적인 문제 유형 탓에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신입생이 속출했습니다. 약 94%의 학생이 '어려웠다'고 답할 만큼 현실적인 벽을 실감한 시험이었습니다.



The 용문Times

용문 기자단 4월 뉴스

11 MAY
2026

Issue No. 002

작성: 20214 이현규 / 20821 최준희
10717 이유민

진짜 '고등'학교의 시작을 알리다: 역동적인 활동부터 치열한 평가까지, 뜨거웠던 용문고의 4월 기록

PAPS 팝스(04.03)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PAPS(Physical Activity Pormotion System)



팝스(PAPS)는 학생의 건강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입니다. 지난 4월 3일 용문고등학교에서 팝스가 실시되었습니다. 팝스는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유연성 측정 등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용문고 학생들의 체력을 평가 및 측정 할 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04.27~04.30)

"치열했던 준비 결과로 답하라"



지난 4월 27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 1학기 중간고사, 누군가에게는 결과로 증명했던 시험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등 협력적인 모습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이후에는 다시 목표를 세우며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용문 학사일정

미리보는 5월 학사일정



Event	Date
동아리 활동	05.13
동아리 활동	05.20
체험학습	05.22
건강검진	05.27

동아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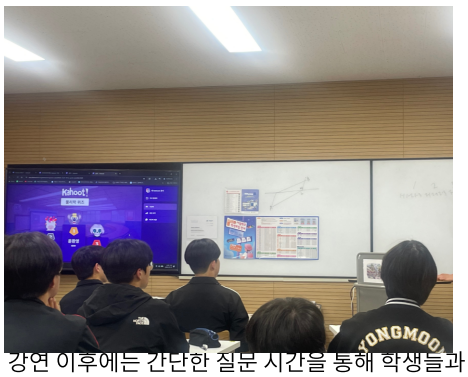
"꿈, 재능 키우는 2026 동아리 활동의 첫걸음"

지난 4월, 용문고 동아리활동의 첫번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정해진 동아리에 선택하여 들어가는 틀에 박힌 방식과 달리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과 동아리를 창설하고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 개선 덕분에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동아리가 없어 원하지 않는 동아리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방식에 비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맞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게되어 동아리 활동으로서의 결과물의 질이 향상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역량인 학생들의 협동력까지 끌어 올릴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학과와 물리학과의 전공나들이 (03.31)



지난 3월 3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학과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두 분이 본교를 방문해 전공 나들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는 신청한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수학과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각 학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각 학과의 세부 과목과 전공 개념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습니다. 강연 중간에는 질문에 답한 학생들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는 두 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통해 두 학과의 특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간단한 질문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강연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과 대학생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OOO학생은 "이번 강연을 통해 관련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공 나들이 강연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접하고 진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구체화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문 세계뉴스

외교 경제 교육 세계 뉴스

11 MAY 2026

Issue No. 002

호르무즈發 에너지 쇼크와 2028 대입 개편,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

외교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폭발 사태… 중동 정세 '격랑'



2026년 5월 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폭발 사고는 현재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우리 외교 안보에 큰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의 주인공은 HMM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인 '나무(NAMU)호'로, 당시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선박 후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화재도 진압되었지만, 선박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현재는 인근 항구로의 예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거대한 물보라와 폭발 충격 등 정황상 단순 결함보다는 기뢰나 드론에 의한 외부 피격 가능성이 짙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시점과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배후 세력의 경고성 공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는 단순 사고를 넘어 중동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결단력과 전략적 포지션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나무호 외에도 25척의 선박과 160여 명의 선원이 두 달째 고립되어 있어, 이들의 안전한 철수가 긴박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추가 피격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국가 에너지 생명선인 호르무즈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결단 및 국제적인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제

파업시 국제 경제 악영향, 삼성전자 '노사갈등'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의 경영 위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신 의장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고, 사업 경쟁력 저하와 고객 신뢰 상실, 주주와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신 의장은 "지금은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순천향대, AI 중심대학 선정…"AI 교육 거점 도약"



순천향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05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전문 인재 및 AX(AI 전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순천향대는 기존 SW 중심대학 성과를 기반으로 '전환 대학' 유형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추진되며, 정부지원금 240억원가량을 포함해 모두 278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또한 순천향대는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메디컬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The 용문Times

용문 기자단 5월 뉴스

11 June 2026

Issue No. 003

작성: 10714 윤지훈 / 20506 김준수
20517 장인우 / 20806 김찬주

교생실습으로 더 특별해진 5월의 교실, '배움의 설렘'과 '체육대회의 열기' 까지 더했다

교생 실습 (5.06~5.29)

교생 선생님과 함께한 3주…용문고, 소통과 활력으로 가득했던 교육실습

"가르치며 배우다"... 용문고를 밝힌 사제 간의 동행







용문고등학교는 지난 3주간 고려대학교 및 용문고 졸업 교육실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교과를 비롯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과목의 예비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오랜시간동안 교생실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실습 기간 동안 교생들은 현직 교사들의 지도 아래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교사로서의 실무 역량을 쌓았다. 학생들 또한 대학 진학과 진로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는 교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활기찬 학교생활을 보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한 교생은 "입학했을 때부터 걱정했던 교생실습 좋은 동료 교생쌤들, 따뜻한 학교 선생님들, 밝은 학생들 덕분에 다시 돌아보고 싶은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3주간의 실습은 예비 교사들에게는 현장 경험의 발판이, 용문고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로의 든든한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실습 마지막 날, 학생들과 교생들은 그동안 쌓인 정을 나누며 아쉬움의 인사를 건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3주간의 뜻깊은 여정을 다함께 마무리했다.

용문 학사일정

미리보는 6월 학사일정



Event	Date
▪ 지방선거	06.03
▪ 6월 모의고사	06.04
▪ 대입설명회	06.17
▪ 기말고사	06.24~06.30

멘토멘티

상담부 주관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학생 간 학습 지도 프로그램인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멘토링 활동 참가자를 모집했다. 멘토는 지난 3월에 치른 모의고사 1, 2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멘티는 6등급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선발 과정에서는 멘토와 멘티 모두 엄격한 자격 평가를 거쳤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 멘토로 나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멘티 학생을 1대1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정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고 올바른 학습 방법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멘티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도 또래 친구에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멘토 학생 역시 친구를 직접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진로 세미나 (5.06)



고려대 정동휘 교수, 용문고서 'AI 융합' 미래를 말하다

지난 5월 6일,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정동휘 교수께서 용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로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이번 강연은 해촌관에서 1·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동휘 교수는 강연에서 건축사회환경공학의 미래가 AI 기술과의 융합에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현장 체험 학습 (5.22)

지난 5월 22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루한 학업에서 벗어나 체험학습에 나섰다. 1학년은 북서울꿈의숲에서 생물 일지를 쓰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였고, 2학년은 어린이대공원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람하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수련회, 수학여행을 대체해서 가는 체험학습을 하루만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개인마다 다양한 추억을 쌓으며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체육 대회

지난 5월 11일, 우리 학교에서 학생회가 주관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족구와 농구 두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팀을 이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족구 경기에서는 빠른 발놀림과 팀워크를 돋보이며 1학년은 1반과 3반이, 2학년은 3반과 7반이 결승으로 올라갔다. 농구 경기에서는 열띤 응원 속 박진감 넘치는 공방전이 이어지며 1학년은 2반과 4반이, 2학년은 2반과 8반이 결승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문 세계뉴스

외교 경제 교육 세계 뉴스

11 JUNE 2026

Issue No. 003

감염병 확산 우려와 노동 갈등, 대형 안전사고 … 국민 불안 키우는 복합 위기

생명과학

코로나 극복 후 또 다른 위기?...에볼라 변종 출현

최근 코로나 19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제 보건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WHO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의학계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고열, 구토, 설사, 출혈을 유발하며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합니다.

그동안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백신과 치료제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등장한 변종은 얘기가 다릅니다. 현재 바이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변종은 기존 백신이 거의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WHO긴급 위원회는 코로나만큼의 펜데믹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의 위험등급을 펜데믹 직전 단계인 5단계로 지정하여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오지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는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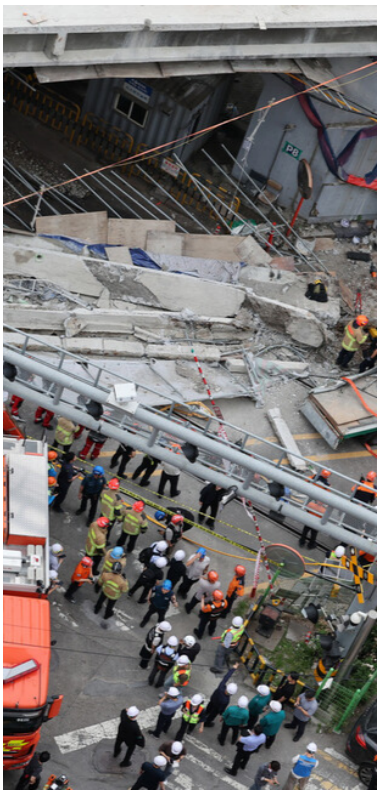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승승장구 속에 나타난 새로운 과제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불투명하게 지급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고, 총파업 돌입 1시간 30분을 앞두고 정부 중재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임금은 6.2% 인상되고 성과급은 총 12%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사업부별 격차는 컸습니다. 반도체(DS) 부문은 최대 6억 원을 받게 된 반면, DX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쳐 같은 회사 안에서 최대 100배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성과가 직원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사회에 남겼습니다.

건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3명 사망·3명 부상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상판이 약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작업이 중단됐으나, 이후 안전진단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거 순서 미준수 등 인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철도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로 KTX 등이 운행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사고로 노후 교량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와 전문 감독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현재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The 용문Times

용문 기자단 6,7월 뉴스

작성: 10503 김민준/10511 양정원/10513 송민우
10702 김희찬/10703 도윤우/20815 우도윤

14 JULY 2026

Issue No. 004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한, 1학기 마무리와 학생들의 미래를 향한 용문고등학교의 발걸음

기말고사 (6.24~6.30)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한 학기의 결실을 맺는 기말고사 실시

용문고등학교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시간,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떨어지면 안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교내에는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자율 학습 시간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며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역시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험 전 고사장 환경을 점검하고 감독 교사를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과 생활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단순히 성적을 평가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태도와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쌓아 온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기말고사가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문 학사일정

미리보는 8월 학사일정



Event	Date
▪ 수업량유연화	07.06~07.20
▪ 방학식	07.21
▪ 여름방학	07.22~08.17
▪ 개학식	08.18

6월 모의고사

해맑게 한번 웃고 앞으로 보며 나아가기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수능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시험으로 용문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시험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국어,영어, 수학 모두 지난 2025년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세 과목의 등급컷이 평균 5점 정도 올랐으며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지난해에 비해 1등급 비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용문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전 과목이 평균 한 등급씩 올라간 학생들이 매우 많았지만 매우 높은 사회 1등급 컷으로 사회 과목에서는 등급이 떨어진 학생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첫 6월 모의고사를 보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본 시험 난이도 또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용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도와 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입 설명회(6.17)



용문고, 1·2학년 대입 설명회 개최…"맞춤형 입시 전략 제시"

용문고등학교가 6월 17일 교내 해촌기념관에서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진학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촌기념관을 가득 채운 재학생들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입시 전문 강사가 나선 설명회는 변화된 수능 및 내신 평가 체제 분석과 용문고 선배들의 누적 합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용문고등학교는 최근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과 성매매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의 중요성을 배우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대처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 페스티벌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점심시간 교육과정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을 활용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음료수가 제공되어 즐겁고 유익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직접 탐색하며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문 세계뉴스

외교 경제 교육 세계 뉴스

14 JULY 2026

Issue No. 004

세계를 움직이는 이슈, 스포츠·K-뷰티·의료의 최신 소식

스포츠

2026 FIFA 월드컵,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2026 FIFA 월드컵이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본선에 참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경기와 다양한 국가들의 경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로,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축구 대회입니다. 각국 대표팀은 우승을 목표로 치열한 경기를 펼치며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5회)이며,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4회, 아르헨티나가 3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월드컵은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 축구 발전을 이끌어 온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참가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 국제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축구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새로운 강팀의 등장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뷰티

K-뷰티, 아마존 프라임데이서 글로벌 인기 입증

최근 K-뷰티 브랜드들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업계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제품군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K-뷰티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료

코로나 후유증 피로감, 뇌 도파민 신경 손상 탓



캐나다 중독·정신건강센터 연구진이 코로나 감염 뒤 피로와 무기력감이 이어지는 후유증이 뇌의 도파민 신경 손상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롱코비드 환자 24명과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방사성 추적 물질로 뇌 속 특정 신경의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활용해 뇌 속 도파민 신경 말단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롱코비드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의욕과 운동, 기억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서 이 신호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도파민을 내보내는 신경 말단이 줄어들거나 손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롱코비드 환자의 도파민 신경이 많은 뇌 부위에 염증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염증이 도파민 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피로와 무기력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 했습니다.

The 용문Times

용문 기자단 10월 뉴스

작성: 20806 김찬주 / 20517 장인우
20415 이준석

16 OCTOBER 2026

Issue No. 005

개학과 모의고사부터 리더십캠프와 중간고사까지, 2학기의 주요 일정과 학교생활

개학식(08.18)

용문고등학교, 2학기의 시작

남은 학년, 뜻깊게 채워 나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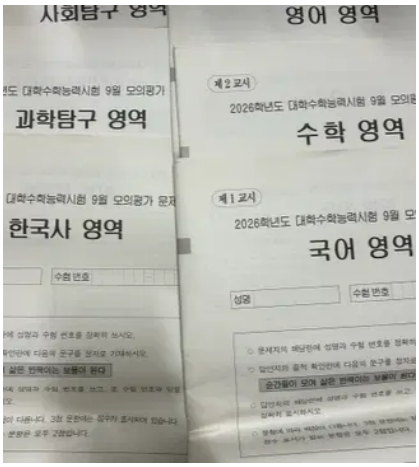
여름방학을 마친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방학 동안 잠시 멈췄던 학교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2학기,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9월 모의고사(09.02)

"웃는 미소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여름의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지다

지난 9월 2일,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 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학년별로 다른 출제 범위와 난이도 속에서 각자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앞두고 실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은 학년을 알차게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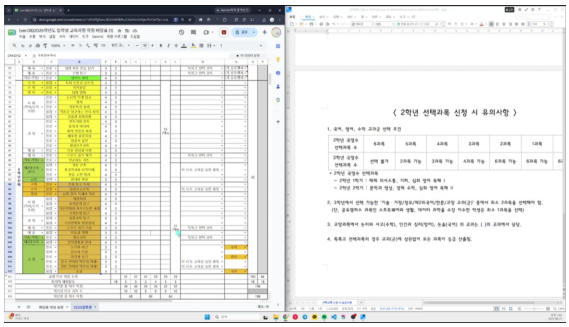
용문 학사일정

미리보는 10월 학사일정



Event	Date
용문고 80주년 행사	10.16
학력평가	10.20
성폭력 예방 교육	10.21
동아리활동	10.28
어울림 한마당	10.30

중간고사(09.28~10.02)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용문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며 남은 학기의 학업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10월 선택과목 신청을 앞두고 9월부터 관련 안내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사 일정은 학생들이 현재의 학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신의 관심과 진로를 고려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더십 캠프 및 학교장 간담회(08.26)



지난 8월 26일, 용문고등학교 각 학급 정·부회장 임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명식은 새롭게 선출된 정·부회장들이 학급을 대표하는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회장들은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생들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임명식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학급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리더십캠프 이후에는 학교장 간담회가 진행되어 학생들과 학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학교 시설 개선과 학습 환경, 수학여행 등 실질적인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이번 리더십캠프와 간담회는 학생들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지속되어 더욱 나은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용문 세계뉴스

외교 경제 교육 세계 뉴스

16 OCTOBER 2026

Issue No. 005

민간 대행사에 맡겨진 '수시 원서접수' 이대로 괜찮나… 서버 오류에 입시 신뢰도 '휘청'

교육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접수 마감 10분 전인 2026년 9월 11일 17시 50분경, 서버 오류로 접수 및 결제에 차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며 눈치싸움을 하는 수험생이 상당수 존재하여 항상 마감 직전에 접수가 몰리는데, 주로 이들이 이번 오류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번 오류는 보안 업데이트 중 발생한 것으로, 접수 마감 직전의 이용자 몰림 현상까지 더해져 문제가 커졌습니다.

18시 20분경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며,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서 접수 시간을 19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이 18시에 맞춰 경쟁률을 공지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리하게 활용한 학생도 존재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일각에서는 상당수 대학의 요강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발생 가능성을 알려왔던 사안이므로,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사에 의존해 온 원서접수 구조가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험생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입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입니다.

건설

"탄소 뿜던 콘크리트의 반란"… 이젠 온실가스 먹어 치운다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일 산업으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짓는 것'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들은 여론을 뒤집고 있습니다. 메프코 슐렌크공과대학 연구진은 제올라이트와 바이오차를 배합한 새로운 콘크리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다공성 물질인 제올라이트와 바이오차가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점은 탄소를 흡수할수록 콘크리트 내부 구조가 더욱 치밀해져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흡수 콘크리트가 보급되면 도시 자체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학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

성적, 입시 제도, 타인의 시선 등 고등학교 생활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로 가득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사상은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고등학생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강력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시험 난이도나 타인의 평가처럼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에 집착할 때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학습 태도, 노력, 마음가짐처럼 통제 가능한 내면에 집중하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습니다. 엥케이리디온은 에픽테토스의 책으로 삶의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룬 52개의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